

단군신화의 보편적 인간관*

조 경 철**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단군신화의 보편적 인간관 |
| 2. 단군신화의 편찬 시기와 여러 층위 | 5. 나가며 |
| 3. 단군신화의 인간적 해석 | |

1. 들어가며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고려시대 일연(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일반적으로 단군신화를 신고 있는 『삼국유사』의 편찬목적에 대해서 몽골의 침략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실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몽골군에 대항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몽골침략기가 아닌 원간섭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단군신화를 몽골침략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삼국유사』가 원이라는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¹⁾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034).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소장

1) “그런데 고려의 정치가 몽고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이르면 유교의 정치사관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사관(精神史觀)적 역사의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정신사관을 강하게 반영하는 사서가 『삼국유사』인 것이다” (정병삼, 『일연』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작과비평사, 2006(6월), 83쪽). 물론 『삼국유사』의 편찬기간에 자료 수집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는 몽골침략기와 원간섭기에 걸쳐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가

여기서 1279년 원에 의한 송의 멸망이라는 국제적인 정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송과 요, 금, 원이라는 다원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자존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관계는 송나라가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따라서 송이 배제된 국제관계를 고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송[남송]이 원에 의해서 멸망되는 미증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 역사상 이민족에게 나라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송의 멸망은 세계의 중심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에 기대어 우리 역사의 왜소함을 달래었다면, 송의 멸망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국사(東國史)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²⁾ 원의 압력을 극복하려고 했다가보다 송의 멸망에 따른 고려의 자기 찾기 측면이라는 점이 더 컸다.

단군신화가 적극적인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단군신화는 한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민족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철은 단군을 신으로 하는 대종교를 만들어 일제에 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21세기에 단군신화는 이제 우리의 관심 밖이 되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군신화의 민족적, 배타적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군신화는 우리가 하나라는 구심점을 제공해 주었지만, 지금처럼 나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 사는 다문화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단군신화의 강조는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비칠 수 있다.

단군신화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군신화에 대한 새로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단군신화를 외세의 극복이라는 타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나가는 내면적인 반성의 측면에서 재해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 민족적 배타적 측면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측면에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2) 조선시대 청에 의한 명의 멸망도 조선 지식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조선은 성리학에 의해 건국되었기 때문에 고려보다 더 사대적 일 수밖에 없었다. 청에 의한 명의 멸망은 조선의 역사의식의 고취라기보다는 명의 문화를 우리가 계승했다는 소중화(小中華)의식과 연결되었다.

서 다루어 보고 싶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단군신화를 ‘인간이 되고자 하는 법과 꿈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사실 모든 신화는 그 신화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선민의식과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화의 생명력이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를 민족적 특수성보다는 인간적 보편성에 주목해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단군신화의 편찬 시기와 여러 층위

단군신화에 민족적 색채와 배타성이 강하다는 필요이상의 느낌은 단군신화가 처음 『삼국유사』에 실렸다는 점에 기인한다.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실린 시기는 바로 몽골의 수 십 년간의 침략을 받다가 원간섭기로 넘어간 시기였다. 그래서 단군신화=민족정신, 단군신화=외세배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물론 단군신화에 이러한 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군신화가 처음 실린 시기가 원간섭기라는 점은 단군신화의 이해에 상당한 제약을 두었다. 초기 단군신화를 연구한 일인학자들처럼 단군신화가 일연의 의해서 날조되었다고 본다면³⁾ 단군신화의 외세배격과 민족정신 고취라는 설은 더욱 확고해 진다.

하지만 단군신화가 일연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고 몇 단계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는 민족이나 선민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적 문화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문화요소의 층위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로 넘나들면서 단군신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왔다.

그렇다면 단군신화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실

3) 今西龍, 「檀君の說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1910; 今西龍, 「檀君考」, 『靑丘學叢』1, 1929; 신종원 엮음·신종원외 옮김,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려 있지만 실은 『고기』를 인용하고 있다. 『고기』가 특정한 책 이름인지⁴⁾ 아니면 단순히 옛날 기록이란⁵⁾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기』의 편찬연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단군신화도 마찬가지로 고려 전기 『고기』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단군신화가 고려 전기에 실렸다고 해서 이때 처음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구전이나 문자기록으로 전해진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고기』에 실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고기』 이전의 단군신화가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다. 즉 단군신화의 환인-환웅-단군이란 이름이 언제 문자로 정착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고려 전기의 『고기』 기록보다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근거를 단군의 할아버지의 이름인 환인에서 찾을 수 있다.⁶⁾ 『고기』에는 환인(桓因)이란 단어에 제석(帝釋)이란 분주를 달았는데, 이 분주는 『고기』에 원래 있던 분주가 아니고 『삼국유사』가 『고기』를 인용할 때 단 분주로 생각된다. 제석은 불교용어로 제석천(帝釋天) 또는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고 하며, 수미산 정상 도리천의 주인을 말한다.

석제환인은 석가제환인드라[釋迦提桓因陀羅]의 줄임 말인데, 석가(釋迦)는 sakra로 능(能), 제환(提桓)은 deva로 천(天), 인드라[因陀羅]는 indra로 제(帝)의 뜻이다. 석제환인은 석가의 석과, 제환의 제환과, 인드라의 인이란 소리 말을 따서 만든 용어이다. 반면 제석(帝釋)의 제(帝)는 인드라의 뜻을 딴 것이고, 석(釋)은 석가(釋迦)의 석이란 소리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조선시대 안정복은 환인제석이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였⁷⁾ 이후 환인은 석제환인의 줄임말이라고 보는 인식이 굳어졌다.⁸⁾

그런데 불교경전에서 환인의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⁹⁾ 그래도 석제환인

4) 김상현, 『『고기』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5) 이강래, 『삼국유사 인용 고기의 성격』, 『삼국사기전거론』, 민족사, 1996, 205~207쪽.

6) 환인에 대한 논의는 조경철, 『단군신화의 불교적세계관』,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를 참조하였다.

7) 안정복, 『동사강목』 第一上, “其所稱桓因帝釋 出於法華經 其他所稱 皆是僧談 羅麗之代 尊崇異教 故其弊至此矣”(윤이흠 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중보판), 2001, 472쪽 재인용).

8)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최광식·박대제 역주, 『삼국유사』(I),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36쪽.

을 줄여서 환인으로 부르는 용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장경을 검색해 본 결과 수천 건의 석제환인만 있었지 환인은 없었다.

그 이유는 산스크리트를 음사한 석제환인을 의미상 석제와 환인으로 나눌 수 없다는데 있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아가페란 세례명이 있고 성씨가 지씨인 사람을 지아가페로 부르는데, 지아가페를 지아와 가페로 줄여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석제환인을 환인으로 줄여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른 것은 아직 불교의 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석제환인을 환인으로 줄여 부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기 일 것이다.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까지 올라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에 이미 백제의 제석사나, 신라 진평왕의 제석신앙에서 알 수 있듯이 제석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에 대응하는 환인이란 문자로 정착된 시기는 전고려(前高麗)¹⁰⁾가 372년 불교를 수용한 이후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9) 불교경전에서 환인의 용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은 이미 서영대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다(서영대,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노태돈 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123쪽).

10) 이 글에서 고구려를 前高麗로 칭하였다. 5세기를 전후하여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나라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이후 고구려인들도 자기 나라를 고려로 부르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고려로 부르고, 왕건의 고려시대에 편찬한 『삼국유사』 왕력에서도 고려로 부르고, 주변 나라인 당나라에서도 고려로 부르고, 일본에서도 고려로 부르고, 왕건의 고려가 들어서서도 200년 이상이나 고려로 불렀다. 그런데 고려로 통용되던 상황에서 김부식은 고구려로 나라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하지만 김부식보다 후대에 살았던 일연과 정몽주는 고구려를 고려로 부르고 있다. 특히 정몽주는 1373년(명 홍무 6년, 공민왕 22)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와서 명나라 황제의 명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고려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려로 부르고 있다(『포은집』, “六年癸丑七月 先生還自京師 宣帝命曰 高麗在唐太宗時 遣子弟入學 今王(공민왕=필자 주)亦請遣之 誠爲盛事 但高麗距京師水陸萬餘里 父母必懷其子 子必思其親 聽其父母 情願者遣之 又每年數次貢獻 …”).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 주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고려란 나라이름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조경철, 『2010년 검인정 6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삼국시대 관련서술 검토』, 『사총』 74,

중반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일까.

백제의 경우 위만에 쫓겨 난 준왕이 정착한 곳이 백제의 영역이었고, 신라는 조선유민이 내려 와 산곡 간에 살았다고 했으므로¹¹⁾ 백제와 신라 모두 고조선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조선의 역사와 영역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전고려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 왕력 고려[=고구려]조에서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고려, 백제, 신라가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어떤 나라가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단군신화를 문자로 정착시켰나를 주목해야 한다. 이럴 때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 전고려의 평양천도이다¹²⁾. 전고려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35년 전 이미 광개토왕이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창건할 정도로 평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고려는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평양의 역사와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평양에 대한 관심은 자연적으로 고조선과 고조선의 단군신화로 옮겨갔을 것이다.

전고려는 구전으로 떠돌던, 혹은 기록으로 남아있던¹³⁾ 단군신화를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재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⁴⁾ 이때 평양과 전고려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에서 주몽이

2011; 「역사계승의식과 정체성의 경계-고려국호를 중심으로-」,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고려 광개토왕대 불교와 유교의 전개양상」,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궁예와 왕건의 고려와 혼란이 생길 경우 고구려는 前高麗, 궁예는 後高麗나 태봉, 왕건의 고려는 그대로 高麗로 한다.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거세,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12) 단군신화의 성립연대는 아니지만 단군신화의 날조를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관련 시킨 선행연구가 있다(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1894; 신종원 엮음·신종원의 옮김,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7쪽).

13) 고조선 멸망이후 평양에 낙랑군이 세워졌는데, 적어도 이 때 단군신화가 어떤 형태로든 문자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 조선 중종 때 간행된 임신본 『삼국유사』에는 환인이 ‘桓國’으로 되어있어, 단군신화의 환인을 환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야학계의 견해가 있다. 그들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 이전에 한국이란 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공개된 조선 초기 간행의 과륜본 『삼국유사』에 ‘桓國’으로 되어있어, ‘國’자가 곧 ‘國’자라고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편찬된 고려대장경에서 『文殊師利普超三昧經』의 甫因을 『新集藏經音義隨函錄』에서 재인용 할 때 甫因이 아닌 ‘甫田’이라하였다. 이로 볼 때 田이 國과 소리와 뜻에서 모두 같은 글자

단군의 아들이라는 말이 생겼을 수 있다.¹⁵⁾ 전고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은 전고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372년으로부터 180년 뒤다. 이때는 아직 범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석제환인을 줄여 환인으로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석제환인은 불교의 제석(帝釋)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염부제를 포함한 수미산의 최고의 천신이자 지배자이다. 지상세계에 아들 환웅을 내려 보내 손자 단군으로 하여금 고조선을 건국하게 한 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석제환인(釋提桓因)을 줄이는 방법은 환인도 있지만 석제도 있다. 석제를 택하지 않고 환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환인이 우리말의 하느님이란 뜻에 가깝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환인은 우리 고유말로 환한 님, 밝은 님, 하느님으로 풀 수 있다. 환인은 우리말의 하느님과 불교의 석제환인[제석]이란 소리말과 뜻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만족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석제환인을 줄인 환인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환인이란 말이 전고려 평양천도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라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의 내용도 실은 평양천도 이후 재정리된 단군신화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인이란 이름을 통해 단군신화의 상한을 평양천도 전후로 추정해 보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군신화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군신화의 신화소인 범, 곰, 쑥, 마늘, 100일, 21일 등은 평양천도 이후 단군신화에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 고려 전기의 『고기』, 5세기 전고려의 평양천도, 고조선의 건국 등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만들어졌

임을 알 수 있다. 조정철, 『과른본』 『삼국유사』 기증 기념 학술회의 발표회 논문집』 토론문(연세대박물관, 2013.04.26)

15) 『삼국유사』 왕력 고려, “第一東明王 甲申立 二十八 姓高 名朱蒙 一作鄒蒙 壇君之子”. 추몽[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란 인식은 왕력 찬자의 견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전고려의 단군인식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조정철, 『근대 이전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三品彰英은 고려말 또는 조선초의 가필로 보았다(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44쪽).

다. 각 층위마다 단군신화의 목적은 달랐다. 고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전고려는 평양천도의 정당성, 『고기』는 고조선-전고려-고려의 계승의식의 강조, 『삼국유사』는 자기 역사 찾기라는 측면에서 단군신화를 부각시켰다.

각 층위는 단군신화의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층위마다 변하지 않는 보편적 요소가 있었다. 사실 단군신화가 몇 천 년을 이어내려 온 이면에는 특수성을 아우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 요소를 간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단군신화의 내용을 따라 가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3. 단군신화의 인간적 해석

단군신화를 신고 있는 『삼국유사』 인용 『고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그곳에)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나) 환웅은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고 이분을 환웅천왕으로 불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서 관장하고, 인간 세상에 관한 3백 60여 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세상에 머물러 다스리며 교화하였다. (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변하여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에 신이 영험스러운 썩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금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은 더불어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매번 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였다.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라) 그

는 요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서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한다. 1천 5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였다”라고 하였다.¹⁶⁾

단군신화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가) 환인이 아들 환웅을 뜻을 헤아리고 삼부인 3개를 주고 인간세상에 내려가 다스리게 한 부분, (나)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신단수에 내려와 신시를 건설하는 부분 (다) 곰과 범이 인간이 되고자 했으나 곰만 인간이 되어 환웅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게 되는 부분, (라)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 부분이다. 단군신화의 시간전개는 (가)에서 (라)로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은 역순으로 (라)에서 (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건국과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아버지 환웅과 할아버지 환인을 끌어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와 (나)에서는 환인, 환웅 등 신들이 등장하다가 (다)에서 갑자기 동물인 곰과 범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전개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곰과 범이 같은 동굴에 살고 있다는 ‘일웅일호 동혈이거(一熊一虎 同穴而居)’로 시작되는 단군신화의 본 편은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같이 살 수 없는 곰과 범을 한 동굴에 집어넣은 불합

16) (가)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나)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다)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於神 雌化為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라) 以唐高卽位五十年 庚寅(唐堯卽位元年 戊辰 則五十年 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 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리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화에 긴장감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¹⁷⁾

동거하고 있던 곰과 범은 동굴을 나와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곰과 범은 왜 사람이 되고자 했을까?¹⁸⁾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라 딱 부러진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 누군가 대답했다. “인간이 되고 싶어서요” 그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묻고, 다시 “그럼 지금 당장 당신의 종교가 말하는 살기 좋은 곳에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니오! 지금 인간으로 사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늙고 병들어 인간으로 살 수 없을 때 까지 인간으로 남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곰과 범도 그러지 않았을까? 곰은 곰처럼, 범도 범처럼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이 되고자 했을까? 그것도 환웅이 이들을 찾아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찾아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를 역사학적 접근 방법에 입각하여 신석기 문화에 기반한 곰부족과 범부족이 청동기 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이주민 세력인 환웅에게 항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과 범이 인간이 되고자 한 이야기를 역사적 해석으로만 넘기기엔 이야기의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사실 곰과 범이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단군신화 속에 답이 있다. 인간이 된 곰[웅녀]의 행적을 따라가면 된다. 곰은 사람이 되자마자 신단수에 가서 애기 갖기를 원하고 있다. 즉 곰이 사람이 되고자 한 목적은 누군가의 애기를 갖고 싶어서였다. 그럼 범은 왜 사람이 되고자 했을까? 둘이 같이 사람이 되고자 했으므로 범도 곰과 마찬가지로 애기를 갖고 싶어서였다. 만약 범도 사람이 되었다면 아

17) 기존의 단군신화 분석에서는 도덕성·합리성을 강조하였다. 환웅이 동물인 곰과 범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다고 한다. 곰은 인내하여 사람이 되었지만 범은 인내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환웅은 찾아온 웅녀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여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비도덕·불합리의 연속이다. 환웅은 범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범은 불리한 조건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곰은 뛰쳐나간 범을 따라 나가지 않았다. 곰은 사람이 된 후 범을 찾아가지 않고 환웅을 찾아갔다.

18) 북한학의 이상호는 『단군고』(1995)에서 곰씨족에 속하는 여자와, 범씨족에 속하는 남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병을 다스리는[主病] 환웅에게 찾아가겠다고 한다(이상호, 『단군고』(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연구』, 백산자료원, 2002, 186쪽).

마도 남자[虎男]가 됐을 것이다. 곰과 범 모두 사람이 되었다면 웅녀는 환웅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범의 애를 낳았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곰과 범이 같은 동굴에 살고 있었다는 설정은 단순히 곰과 범의 동거로 볼 것이 아니다. 둘은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고 있었다. 한동안 둘은 동굴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나 둘은 동굴 속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둘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었다. 둘의 사랑에 의해 2세가 태어나도, 2세는 3세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적 사랑, 육체적 사랑 모두 중요하지만 사랑은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종족 보존의 영원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의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둘이 곰이 되거나 아니면 범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곰도 범도 아닌 제 3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선택한 무언가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범의 요구를 받아들인 환웅은 그들에게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죽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범에게 불합리하다. 겨울잠을 자는 잡식성의 곰에게는 견뎌 낼만한 제안이지만¹⁹⁾, 활동적이고 육식성인 범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은 이 불합리한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 둘 다 만족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랑하는 곰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범은 견뎌내려고 했지만 견뎌 낼 수 없었다. 범은 동굴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범이 뛰쳐나간 이상 곰도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곰은 범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 곰은 사람이 되고서도 범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범에게 보여주고 다시 한 번 사람이 되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다. 곰은 범이 아닌 환웅에게 얘기를 갖고 싶다고 하였다.²⁰⁾

19) 강인숙, 『단군신화의 역사』(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연구』, 415쪽. 북한에서는 1988~1989에 걸쳐서 발표), ‘곰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굴속에 들어가 이듬해 4월이나 5월에 굴속에서 나오므로 굴속에 있는 기간은 대략 150일 안팎이다. 환웅이 정해 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한 것은 곰에게 유리한 제안이었다. 혹자는 150일과 비교하여 100일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100일은 꼭 100일이기 보다는 많은 수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꿈이 밤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꿈이 사람이 된 기간도 수상하다. 밤이 뛰쳐나가자 꿈은 100일을 채우지 않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보통 21일은 민간에서 애기가 태어났을 때 ‘금줄’을 치듯이 금기하고 신성시하는 기간으로 알려져 왔다. 21일은 100일·1년과 더불어 우리 민속에서 유아의 성장과정과 관련된 기념일로 여겨져 왔다.²⁰⁾ 따라서 꿈이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환웅은 처음부터 21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21일을 제시하고 꿈이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왜 100일을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100일도 21일 못지않게 애기에게 의미 있는 기간이므로 100일을 채우고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왜 21일 만에 사람이 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혹자는 원래의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이 처음부터 100일을 제시했고 꿈이 100일 만에 사람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21일로 고쳤다고 보기도 한다. 21일은 금기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부처가 선정에 들어 깨달은 기간이기도 하므로, 원래 꿈이 100일을 금기하고 사람이 되었는데 후대 불가의 승려가 100일을 21일로 고쳤다고 보기도 한다.²²⁾

20)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전통적 여성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흔히 동명신화에서처럼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듯 남자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판에 박힌 이야기다. 최초의 여성인 꿈[웅녀]은 자신이 처음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감히 남자를 버렸다.

21) 단군신화의 21일(忌三七日), 100일(不見日光百日), 360여일(主人間三百六十餘事)을 유아의 성장과정과 관련되는 기념일로 보기도 한다(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한국』 2-1, 1949). 아기를 낳은 후 21일은 산모의 건강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아기의 젖살이 오르는 시기이며, 백일과 돌은 기념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온 날이라고 한다(김두진, 『단군고기의 이해방향』,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12쪽).

22) 최복홍,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조선 가락국 건국 신화의 불교 관계 자료 고찰』(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연구』, 357쪽, 북한에서 1986년 발표). 『묘법연화경』 권2 방편품에서 부처가 스무하루동안 고요 속에 미묘한 생각을 하여 지혜를 얻었다고 하였을 때 제석천(환인)을 비롯한 하늘귀신들이 부처를 칭송하고 공경하면서 자기들도 그 방법을 따라 배우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하였다. 강인숙도 100일을 제시했는데 21일만 채운 것을 두고 '신화가 애초부터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꾸며졌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최복홍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강인숙, 『단군 신화의 근사한 원형』(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385쪽, 북한에서 1988~1989년 발표).

그러나 이것은 불교적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불가에서 굳이 100일을 21일로 고칠 이유도 없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21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본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환웅이 처음부터 21일을 제시했을 것이다. 환웅은 천신의 아들이므로 또한 신이기도 하다. 신인 환웅이 제시한 신성한 약속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21일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다.

결국 21일 만에 사람이 된 곰 웅녀는 더 이상 범을 찾지 않고 환웅의 기운이 서린 신단수에서 혼인하여 애기 갖기를 기도한다. 이에 환웅은 인간의 몸으로 바꾸어[假化]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다.

4. 단군신화의 보편적 인간관

지금까지 곰과 범의 이야기를 사랑이란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여기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단군신화에서 말하고자 한 보편적 인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³⁾

참고로 최복홍이 인용한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妙法蓮華經』卷1 <2方便品> : “我始坐道場 觀樹亦經行 於三七日中 思惟如是事 我所得智慧 微妙最第一 衆生諸根鈍 著樂癡所盲 如斯之等類 云何而可度 爾時諸梵王及諸天帝釋 護世四天王 及大自在天 并餘諸天衆 眷屬百千萬 恭敬合掌禮 請我轉法輪” (CBETA, T09, no. 262, p. 9, c4-12).

물론 단군신화에서 2·7일, 4·7일이 아니고 3·7일 즉 21일을 택한 것이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다. 21일은 부처가 선정에 든 기간이기도 하고 아기와 관련된 급기일이기도 한다. 한편 불가에서는 21일이 배속 태내에서 처음으로 남녀의 구분이 생기는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신라의 세계적인 고승 원측이 주석한 『해심밀경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識은 부모가 교합하여 생을 받을 때 머문다고 한다. 수생(受生)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두 정혈이 하나가 되어 식이 머무는 때를 말한다. 이때는 아직 남녀의 성이 구분이 안 되었다가 폐시위의 기간인 15~21일 사이에 살덩이[肉團]가 낳자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며, 여자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아진다.” 『解深密經疏』卷3 : “(眞諦三藏云)…三者第三七日名閉尸 翻爲肉團 男則上闊下狹 女則下闊上狹 肉猶少軟”(CBETA, X21, no. 369, p. 244, c17 // Z 1:34, p. 364, d3 // R34, p. 728, b3).

유감스럽지만 범은 단군신화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단군신화에서 범은 단순히 인내하지 못하는 성질 급한 동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곰과 범은 둘의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인간이 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환웅이 내건 조건은 곰이라면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범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범은 환웅이 자신을 배제하려고 한 의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곰과 범이 인간이 되고자 한 것을 두고 ‘인간이 되면 좋겠네’ 하고 쉽게 넘어갈 이야기라고 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곰과 범에게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절대절명의 모험이었다. 곰은 곰이길 포기하고, 범은 범이길 포기한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었다. 왜 그랬을까? 범은 자신을 버리고, 곰도 자신을 버려 사랑을 완성하고자 했다.

사실 환웅은 범과 곰이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범은 안중에도 없었다. 곰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범이 도저히 견뎌 낼 수 없는 제안을 하였

23) 단군신화의 인간관을 살피는데 있어서 먼저 홍익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게 순서일 것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통치이념이기도 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기도 하였다. 홍익인간의 인간관에 대해선 원고를 준비 중이다. 불경에 홍익인간이란 용례가 보이지 않아 홍익인간을 불교와 연관을 맺기 주저하는 논자도 있다. 하지만 홍익인간은 아니지만 불경에 이익인간과 이익중생이 보이고, 자익인간과 자익중생이 보인다. 불경에 홍익인간은 아니지만 홍익중생이 보이므로 홍익인간의 ‘인간’도 중생의 의미로 풀 수 있다. 즉 홍익인간과 홍익중생은 같은 말이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고 인간세상의 중생을 말하며, 중생에는 사람은 물론 습생, 난생, 태생, 화생의 四生이 포함된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자연과 생태를 중시하는 21세기 인간이 추구하는 이념과 잘 맞아 떨어진다. 홍익인간에서도 인간의 보편적 측면이 잘 나타나 있다.

『大般涅槃經』 卷2: “王恒如是廣行布施。利益衆生不捨晝夜”(CBETA, T01, no. 7, p. 201, c5-6)

『楞嚴經熏聞記』 卷4: “諸龍者此有四種一守天宮殿持令不落二興雲致雨利益人間”(CBETA, X11, no. 269, p. 748, a2-3 // Z 1:17, p. 314, d2-3 // R17, p. 628, b2-3)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3: “能以甘露滋益衆生”(CBETA, T24, no. 1450, p. 110, a20)

『法華經科註』 卷10: “二興雲致雨滋益人間”(CBETA, X30, no. 605, p. 836, b18 // Z 1:48, p. 338, c18 // R48, p. 676, a18)

『增壹阿含經』 卷31 <38 力品>: “以大悲爲力弘益衆生”(CBETA, T02, no. 125, p. 717, b24-25)

다. 결과는 환웅의 의도대로 되었다. 환웅은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²⁴⁾ 범과 곰의 사랑의 이야기는 한 날 상상속의 일에 불과할까? 새로운 이주민 세력인 환웅에게 토착세력을 대표하는 범 부족과 곰 부족이 찾아와 공생(共生)을 요구하자 환웅은 자신에게 유리한 곰 부족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범 부족을 내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여기서 곰이 100일 아닌 21일 만에 사람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환웅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하는 신성한 기간을 100일로 잡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21일 만에 사람이 되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범이 뛰쳐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웅은 혼자 금기(禁忌)하고 있는 곰에게 특별히 기간을 단축시켜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신성한 100일은 환웅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기간이 아니다. 100일을 21일로 바꾼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화에서 100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쓰면 될 일을 굳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일을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신화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 제시한 100일 간의 금기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성스러운 기간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 단군신화에서 제시한 100일 간의 금기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성스러운 기간이다. 그러나 신화에서 제시한 완전한 기간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기간이다.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신화적 인물은 아기장수 우투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 1개의 룡이 모자라 죽음을 맞는 주인공들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성스러운 100일을 채운다면 이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곧 천상의 인간이거나 성인(聖人)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해야 인간이며 완전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만 존재했지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완전한 이브가 인간이 되어 둘의 사랑을 통해 자손을 퍼뜨렸다. 인간은 선악과(善惡果)의 원죄 때문에 불안전하며 그래서 인간이

24) 곰이 범과 같이 살고 나중에 환인과 결혼한 것을 모계사회의 유평인 대우혼(對偶婚)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우혼은 전고려의 경우 유화가 해모수와 관계하고 금와와 결혼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14쪽).

되었다.

곰이 100일을 채우지 않고 21일 만에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79일을 채우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며 100일을 채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다가가는 것이 인간이다.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이고 원간섭기나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측면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벗어나 온 인류와 함께 공유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²⁵⁾ 단군신화의 21일이 말하고 있는 상징은 ‘불완전한 인간관’이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곰과 범이 곰이기를 범이기를 버리는 ‘머림의 인간관’이다. 100일 동안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과정의 인간관’이다.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아니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희망의 인간관’이다.²⁶⁾

25) 이러한 보편성이 과연 단군신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필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설사 현재적 관점이라도 해도 신화는 과거 속에 매몰 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다. 그러한 화두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면 신화의 현재적 해석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26)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엄연히 눈코입 달린 사람인데 ‘사람이 되라’는 말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람이 아니다. 속까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곰이 채우지 못한 나머지 79일을 채워야 한다. 한국인이 마늘 먹기를 좋아하는 문화현상은 단군신화로 설명할 수 있다. 마늘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곰이 먹지 못한 79일분의 마늘을 마저 먹어야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별주부전에서 토끼간이 효험이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효험이 아니다. 달속의 토끼가 청정세계에서 불로초를 뺏으면서 몇 천 년 동안 불로초를 훔쳐 먹었기 때문에 토끼 간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여겨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현상도 일조일석에 생겨 난 것이 아니고 과거의 문화가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몇 년 전인가 여성들이 백호띠 남자에 낳기를 선호했다. 여성이 용감한 사내애를 낳기 위해 백호띠 사내애를 선호했을 것이다. 인간이 되기 위해, 애를 갖기

5. 나가며

역사는 현대사란 말이 있다. 과거의 역사라 해도 현재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신화에도 해당된다. 신화를 처음 그것을 만들었던 집단에 한정되는 이야기라고 단정하여 관심밖에 두는 것은 신화의 한 면을 보고 내린 선부른 결론이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지만 당시의 신화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과거와 다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와 공유하는 공통분모이다. 따라서 신화의 현대적 해석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단군신화를 사례로 들어 단군신화에 들어있는 보편적 인간관을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단군신화의 주인공이 환웅-단군으로만 이어지는 아니고 곰이나 범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지면으로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문화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신화에 대한 딱딱한 해석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의 현대적 해석은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알영신화, 수로신화, 허황후신화, 탈해신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신화는 그동안 가부장적 관점에서 혁거세 신화가 중심이었고 알영신화는 부수적이었다. 그런데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알영은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용은 주로 왕의 상징동물인데 이 용이 혁거세가 아닌 알영의 탄생신화와 관련 있다는 점은, 신화를 남녀의 고정된 틀 속에서 보지 말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알영신화의 성립 층위도 『국사』 단계, 선덕여왕 단계 등 몇 개가 중첩되어 있다. 석가의 탄생을

위해 환웅을 택하였지만 곰의 첫사랑은 범이었다. 여성이 백호띠 애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곰과 범은 같이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인간이 되지 못하고 뛰쳐나간 범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원초적 존재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문헌인 『묘향산지』에서는 환인의 아들이 桓雄이 아니라 곰 용자가 들어간 桓熊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桓熊과 白虎가 결합하여 단군을 낳는다고 하여 『삼국유사』에서 이루지 못한 곰과 범의 사랑을 이뤄내고 있다.

연상시키는 알영의 탄생신화는 선덕여왕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알영신화를 비롯한 여러 신화의 ‘인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다문화사회와 남녀평등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단군신화의 곰과 범과 환웅의 이야기를 역사적 관점보다는 곰과 범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다. 종래 단군신화의 곰, 범, 환웅을 신석기 단계의 곰부족과 범부족이 청동기 단계의 환웅세력에게 흡수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면, 그것은 기존의 두 사람의 사랑을 뺀 썬 남자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세 사람의 갈등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단군신화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관점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배타성을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군신화의 이야기를 인간에 맞춘다면, 인간 모두가 겪게 되는 사랑, 갈등, 배반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이 되고자 한 곰과 범의 사랑,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하는 범의 갈등, 범을 배반하고 환웅에게 달려간 못된 곰의 이야기다. 역사 속 최초의 여자인 웅녀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여 끝내 이뤄내고야 마는 진취적 여성의 이야기다.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설명하면서 단군신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100일을 채우지 않고 21일을 채운 인간[웅녀]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이란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단군신화에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하였다. 곰은 곰이기를 버렸고, 범은 범이기를 버렸다. 탐욕에 무한한 팽창을 하고 있는 21세기의 인간에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과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라’는 단군신화의 명제는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참고문헌

『東史綱目』, 『妙法蓮華經』, 『解深密經疏』, 『大般涅槃經』,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增壹阿含經』, 『文殊師利普超三昧經』, 『新集藏經音義隨函錄』

강인숙, 『단군신화의 역사』, 1988~1989(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김상현, 『『고기』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김정배, 『단군 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한국상고사의 체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노태돈 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리상호, 『단군 설화의 역사성』, 『역사과학』 3-4, 1962(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백산자료원, 1995).

서영대,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신종원 엮음·신종원의 옮김,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2004.

윤이흠,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8.

이상호, 『단군고』, 1995(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이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정병삼, 『일연』;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작과비평사, 2002.

조경철, 『근대 이전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조경철, 『단군신화의 불교적세계관』, 『삼국유사기이론편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2004.

최광식·박대재 역주, 『삼국유사』(I),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최남선, 『단군론』, 1926; 『육당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3.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1954(최남선 편,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87).

최병현,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고려시대 단군신화 전승문헌의 검토』; 윤이흠 외, 『증보 판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2001.

최복홍,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조선과 가락국 건국신화의 불교관계자료에 대한 고찰』, 『역사과학』, 1986년 4호(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白鳥庫吉, 『壇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28, 1894; 『白鳥庫吉全集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今西龍, 「檀君の説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1910.

今西龍, 「檀君考」, 『靑丘學叢』 1, 1929.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証』(上). 塙書房, 1975.

국문초록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이다. 곰과 범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환웅은 둘에게 썩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하였다. 범은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고 21일을 견뎌내고 사람이 된 곰[웅녀]은 환웅과 결합해 단군을 낳았다. 이 단군이 고조선의 건국자이다.

단군에 대한 인식은 몽골의 침략이나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점점 강해졌고 특히 민족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단군신화의 민족적 성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족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단군신화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서로 사랑한 곰과 범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환웅에게 찾아갔다. 곰은 곰이길 버리고 범은 범이길 버렸다. 인간이 되고자 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곰을 사랑한 범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범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곰은 동굴 속에 남아 썩과 마늘을 먹고 21일 만에 곰은 사람이 되었다.

100일을 채우지 않은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100일을 채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에 다가가는 것이 인간이다. 단군신화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버림의 인간관’이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희망의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universal view of Human in Dangun Myth

Jo, Gyung-cheol

Dangun[檀君] myth was the state-founding myth of Korea's first kingdom Gojoseon. Bear and Tiger prayed to God[Whanin 桓因]' son, Whanwoong[桓雄], to become man and woman. Whanwoong gave his word. Eating mugwort and garlic and Don't see sun for 100 days, You will become. Tiger didn't endure, but Bear endured to became to woman. She married Whanwoong to give birth to a son, Dangun. In Kora the thought that we are the descendants of Dangun had dragged out racial and national sprit when Korea was invaded by Mongol and Japan. But in 21c we are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We have to reinterpret Dangun myth in the side of not nationalism but universality.

Bear and Tiger that loved each other go to Whanwoong at their death. Even though Tiger loving Bear accepted disadvantage terms of a contract, Tiger couldn't endure. Bear became to woman in 21 days without making it 100 days. Dangun myth have four views of human. The first view of human is the view of incomplete human. The second is the throwing of themselves to love each other. The third and the forth is the endeavoring and the hoping toward 100 days in order to become a absolute human.

Key words : Whanwoong, Dangun[檀君], Bear, Tiger, incomplete human, throwing, endeavoring, hoping, absolute human

투고일 : 2014. 7. 11. 심사완료일 : 2014. 8. 8. 게재확정일 : 2014. 8. 11.